

01 교회소식

온두라스 선교 출장

이수진 목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집회를 인도하여 온두라스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02 생명의 말씀

절제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 절제의 열매는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03 기획특집

세 가지 분야로 살펴보는 '나의 믿음'

성경은 믿음에도 분량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롬 12:3). 영혼 사랑, 순종, 입술을 지키는 분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

04 간증

내 삶에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님

시공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콩고민주공화국 왈리 성도와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 남궁영희 권사의 간증.

# 만민뉴스

제716호 2015년 12월 1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구원과 기적의 밤', 세계적인 권능의 축제



온두라스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받은 강사 이수진 목사는 중미 최대 라코세차 교회와 산 페드로 솔라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사진 1, 2, 5, 6, 7). 수많은 사람이 각색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아랫단 사진), 감동적인 공연으로 충만함을 더했다(사진 3, 4는 예능위원회 김정은 자매와 파워워십팀, JBN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여한 김진홍 국장).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로 '허리케인 지저스(JESUS)' 돌풍을 일으켰던 '이재록 목사 초청 2002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이후, 13년 만에 또다시 치료와 축복의 회오리바람이 온두라스를 강타했다.

지난 11월 27일(금) 오후 6시 30분(현지 시간), 우리 교회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를 강사로 라코세차 교회에서 1만여 명이 성전 안을 가득 메운 가운데 '구원과 기적의 밤'이라는 주제로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렸다.

온두라스 산 페드로 솔라에 위치한 라코세차 교회는 중미 최대의 교회로, 국내외 70여 개의 지교회 10만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활발한 사역을 이루고 있다. 당회장 미사엘 아르헤날 목사는 기독교방송 '채널 39번'을 통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 설교 '십자가의 도'를 매일 1시

간씩 방영하고 있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솔리스트 김정은 자매의 스페인어 찬양과 파워워십팀의 공연은 참석하신 성도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충만함을 더해 주었다. 이어 강사 이수진 목사의 '빛 가운데 행할 때 축복'이라는 설교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전체를 위해 환자기도를 해주자 수많은 치료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

선천적으로 들을 수 없었던 성도가 듣게 되었으며, 시력이 회복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었다. 7년 된 간질과 편마비, 심장 비대증, 갑상선염 등을 치료받았고 온갖 통증이 사라졌으며, 수많은 사람이 통회자복하는 등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이번 집회는 '채널 39번'과 8개의 라디오, 인터넷 생중계로 한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

페루, 콜롬비아,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동참한 세계적인 권능의 축제가 되었다.

11월 28일(토) 오후 5시(현지시간)에는 산 페드로 솔라 만민교회 새성전 터에서 야외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진 목사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세주인가'에 대해 설교하였다. 이후 손수건 기도를 통해 갖가지 질병과 문둥병이 치료되는 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전날에 이어 계속되었다.

또한 이 목사는 29일(일) 오후 3시(현지시간), 산 페드로 솔라 만민교회 주일예배 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산 페드로 솔라 만민교회 담임이자 기독교방송 JBN TV 사장인 에스테반 한달 목사는 "저희 JBN과 위성, 인터넷 등을 통해 이재록 박사의 설교를 방송해 왔습니다.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볼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시청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수많은 시청소감이 전화와 이메일, 문자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록 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나 매일 다양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29일 저녁에는 로레나 에레라 온두라스 부통령이 선교팀이 머무는 호텔로 찾아와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수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번 온두라스 선교는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올 한해 질병과 테러, 천재지변으로 움츠러든 사람들의 가슴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보듬어주었다. 2016년, 만민의 사역을 통해 더욱 창대케 이뤄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 절제의 열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금세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니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절제의 열매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고 절제하는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해지도록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음에 임한 덕목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 속에 어우러지게 하는 하나의 중재 기관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것을 취할 때도 무조건 많이 취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듯이 영적으로도 무엇이든 성령의 소욕을 좇아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가령, 희락의 열매가 맺혔다 해도 아무 때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애곡하는데 밝게 웃을 수 없듯이, 구원받은 기쁨이 아무리 충만해도 상황과 장소에 맞게 절제해야 합니다. 충성을 할 때도 절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명을 맡으면 시간을 잘 배분하여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아무리 충만한 모임도 끝내야 할 시간에 절제해서 끝내야 합니다.

사랑, 자비, 양선, 그 밖의 열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좇아 가장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일의 선후나 물러서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 등의 분별과 조절이 바로 절제의 열매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 2. 절제의 열매가 맺힌 증거

### 첫째, 항상 질서를 좇아 행합니다.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별하므로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누구와도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고 오해할 일이 없지요. 또한 격에 맞지 않는 일이나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질서를 무너뜨리고 월권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회장이 사장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열정이 넘쳐 더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그 일을 변경하여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했어도 본의 아니게 결국은 질서를 어긴 것이 됩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능히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 둘째, 시기와 장소, 대상 등을 고려할 줄 압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무 데서나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전도나 심방을 할 때도 대상에 따라 전할 말을 분별하여 진리를 전해야 하지요. 자신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용이 너무 은혜롭고 좋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는 말을 전하면 오히려 상대는 충만함이 떨어질 수 있고 판단, 정죄하여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쁜 사람을 붙잡고 자신이 깨달은 내용이나 은혜받은 체험을 장황하게 말한다면 상대가 실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듣고는 있지만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상대의 입장이나 상황을 살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셋째, 침착하게 일의 전후를 분별하여 대응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급하고 경솔하여 중요한 일을 그르치거나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말을 들을 때나 대답할 때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니 실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말을 조금씩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서 잘 파악하여야 오히려 판단, 정죄가 없으며 그 말을 하는 상대의 의도까지 분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고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상대의 말을 듣고 성령의 역사 속에 진실을 분별합니다. 이렇게 절제하고 분별하여 답변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가 많이 줄어들며, 그만큼 입의 말에 무게가 실려서 상대에게 권세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 3.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 먼저, 변개함 없는 정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지요. 작은 약속도 변개치 않고 끝까지 지켜 나가면 큰 약속도 이행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자기 유익을 좇아 변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지켜 나가는 노력이 쌓이면 결국 정한 마음이 되고 절제의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범사에 앞서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가 보기에 급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는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나감으로 성령의 음성과 주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 나가는 훈련을 하면 세미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이 될 때라야 진리대로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기도도 1시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1시간을 할 수 있고, 2시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한 절을 암송하며,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어야겠다고 결심하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행할 때 늘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통회 자복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행 2:38).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지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절제하지 못한다면 쉽게 화를 내거나 불평으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이나 불륜, 향락이나 사치에 빠진 사람들도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절제의 힘이 약하기에 거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절제의 열매는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며, 성공적인 삶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 1. 절제의 중요성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안정되게 하고 단단히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절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절제의 힘이 약한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대로 행하고자 굳게 다짐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번번이 세상 유혹에 넘어갑니다.

입술의 말에 대한 분야만 점검해 봐도,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 “거룩하고 온전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는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구습을 좇아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송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자녀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다녀오실 때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한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나의 믿음은?

진정 믿음이 있다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참 믿음이 있는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과연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아래 세 가지 분야로 점검해 봄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입술을 지키는 분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선한 고백을 하는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과 지식을 의지한다면 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을 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친히 이끌어 가신다. 진정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연단 중에도 겸비함으로 하나님 뜻을 좇아 선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왕위에까지 올랐으나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하는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백성 시므이로부터 심한 저주와 모욕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용사들을 만류하였다(삼하 16:5-13).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입을 깨닫고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인도받기 원했던 것이다.

요셉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어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므로 오직 선만 좇아 행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선한 고백만 하게 된다. 평소에는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도 막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탄식과 원망을 쏟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연단을 받을 때 겸비해지거나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을 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기 악과 틀 속에서 상대를 판단, 정죄하고 저주하는 악한 입술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조차 민망하다. 믿음이 있다면 설령 시험 환난이 와도 낙담할 이유가 없다(잠 24:10).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증명되며, 충만할 때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선한 고백만 하는 것이다.

## 영혼 사랑의 분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훼방하였다. 돌에 맞아 죽을 뻔 하였으나 살아나고 매를 많이 맞는 등 여러 위험과 험한 일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버림을 받아도 좋다고 고백한다(롬 9:3).



우리가 전도하거나 심방할 때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양 때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영혼들에 대해서도 “저러니 축복을 못 받고 연단을 받지” 하며 함부로 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영혼들을 대신하여 믿음의 고백을 해 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한다. 어찌하든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기를 원할 뿐이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원래 성품이 열정적이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께는 선한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했다. 의와 인과 신, 곧 옳은 것을 좇는 마음과 사랑과 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눈에 보이게 충성하여도 선하지 않은 마음이라면 그것은 참된 충성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충성이 아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므로 충성할 때라야 참으로 믿음 있는 일꾼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

## 순종의 분야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가?

요셉은 열일곱 살 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간 온갖 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과 섭리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종이 되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했다. 세월이 흘러도 희망은커녕 갈수록 더 짝이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마음이 변질되지도 않았다.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좇아 그들을 선으로 대했다. 중소에서 우리나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했던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양보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계속 상대를 위해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이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그 마음에 맞춰 순종한다면, 일시적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행해야 한다.



그런데 순종하려면 마음이 변질된다면 진리의 마음을 이루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중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다. 조금은 내 생각에 맞춰서 바꾸고, 약간은 내 유익에 맞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길 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라면 순교의 길이라도 능히 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란다.

**2015 HAPPY WINTER MERRY CHRISTMAS**  
12/13 ~ 12/19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일곱교회 25
- 성경적 결혼관 1-2
- 육체의 결여 6-10
- 에녹 5
- 창세기 강해 71-75
- 십계명 4-8
- 요한일서 강해 16-22
- 전도 1-2
- 심고 거두는 법칙 1-4
- 응답의 공의
- 의와 틀을 깨뜨리자 1
- 헌신의 의미
- 하나님을 만나려면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7 (이수진 목사)
- 지혜 3 (이미영 목사)
- 막속에 마음 (이미경 목사)
- 은혜 2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20 (신동초 목사)
- 열재앙 33 (정구영 목사)
- 앙선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8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사해보기 4
- 창조와 과학 19
- English 15
- 내 마음의 찬양 23
- 옛날 옛적에 5
- 모두 드려요 40
- 즐거운 요리 16

**해외성회 및 교육**

- 뉴욕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0
- 회상 [시즌2] 7

**LOVE**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 “급성 발작성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왔지만 권능의 기도를 받고 이제는 축구도 할 수 있습니다!”



**율리 김반기 성도**  
(31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2014년, 정부자원부처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유럽 UN 본부에 갈 기회가 주어져 케냐에서 교육을 받은 뒤 발령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퇴직시키고 다른 사람을 임용하여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해 4월, 갑자기 오른쪽 손과 팔에 마비가 오더니 서서히 다리까지 내려갔고, 급기야 얼굴을 비롯해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급성 발작성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 네 곳을 찾아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결과, 어느 정도 혼자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마비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지요. 6개월 정도 치료받다 보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하였습니다.

2015년 3월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어떤 분이 초청장과 빵을 주는 것입니다. 초청장 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청장과 빵을 준 사람은 제가 길을 오가며 킨샤사만민교회 현판에서 보았던 동양인이었지요. 꿈을 깬 뒤 저는 참으로 기이하다 싶어 직접 교회를 찾아가 담임 이호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현판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물었더니 서울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꿈을 통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을 전해 들으며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지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후 저는 킨샤사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 실황이 녹화된 GCN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된 길을 깨우치니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지요.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응답받고 치료받는 간증들을 대하며 저 또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화상으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니 조금씩 걷게 되고 통증이 사라지는 등 몸이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 녹화 방송을 통해서라도 함께하여 온전히 치료받고자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8월 3일, 드디어 화상을 통해 본 수련회장은 성령의 열기로 뜨거웠고, 역시 당회장님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은 놀라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직접 참석한 성도들뿐 아니라 멀리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녹화 방송을 본 저에게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측 편마비로 잘 움직이지 못했던 몸이 풀려 팔과 다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눈도 잘 감기고, 귀도 잘 들리며, 침도 흘리지 않고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월 5일,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정부자원부처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요즘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입니다. 예전처럼 축구도 하며 마음껏 땀을 흘릴 수 있지요.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하나님의 사랑을 시로 노래하고 싶어요”



**남궁영희 권사** (49세, 1대대 1교구)

저는 시를 특별히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일부러 쓰려고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났던 변화들은 저를 시인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수년 전, 귀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중보기도로 얻은 3개월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우치며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 뒤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면서 안개와 같은 것들이 서서히 걷히며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강화의 한 산에서 이른 새벽 산책을 하다가 보랏빛 제비꽃 한송이를 보는 순간,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의 감동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해마다 피어나고 있었구나. 나도 처음에 주신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지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대로 적어 내려갔지요.



저의 시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주변의 권유로 한국기독교작가협회 기독교 문예지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시를 읽어보니 너무나 유려한 문장과 기교가 느껴졌습니다. 이후 저는 이 일에 대해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당신 소식을 듣기 일주일 전쯤에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뒤 예기치 않게 반가운 당신 소식을 듣게 되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오래된 육적인 인생관이 정리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니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당신이 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로 노래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의 길로 인도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li> <li>● 부산시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li> <li>●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li> <li>●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li> <li>●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li> <li>●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li> <li>●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li> <li>●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li> <li>●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li> <li>●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밭길 64 ☎031)652-9981, 010-3278-7712</li> <li>●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103-2217</li> <li>● 천안민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li> <li>●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li> <li>●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li> <li>●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li> <li>●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li> <li>●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li> <li>●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li> <li>●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li> <li>● 마산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li> <li>●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li> <li>●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li> <li>●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li> <li>●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li> <li>●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li> <li>●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li> <li>● 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li> <li>●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li> <li>●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li> <li>● 여수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li> <li>● 목포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li> <li>●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li> <li>●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li> <li>●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li> <li>●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li> <li>●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li> <li>●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li> <li>●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li> <li>●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li> <li>●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li> <li>●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산로 22, 안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li> <li>●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li> <li>●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li> <li>●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li> <li>●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li> <li>●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li> <li>●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li> <li>●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li> <li>●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li> <li>●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li> <li>●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li> </ul> |
|---|--|---|---|---|